



#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OCTOBER 2025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62

### 추천할 만한 가을 나들이 명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이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르네상스 페어



모리스타운 국립역사공원



허드슨밸리 & 하이드파크

시니어들에게 나들이는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역사를 배우며,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순간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값진 추억이 되기 때문이다. 가을을 맞아 뉴저지와 가까운 업스테이트 지역을 포함, 시니어들이 여유롭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 세 곳을 소개한다.

#### 업스테이트 뉴욕 르네상스 페어 (8/6-10/5)

중세로의 시간 여행, 활기찬 축제 한마당

매년 여름부터 가을 초입까지 열리는 르네상스 페어는 업스테이트 뉴욕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이다. 행사장에 들어서면 마치 중세 유럽에 들어온 듯, 기사들이 화려한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시합을 벌이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다. 전통 의상을 입은 배우들이 거리를 누비며 음악을 연주하고, 수공예품을 파는 상점이 즐비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시니어들에게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젊은 시절 책에서만 보던 중세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기회가 된다. 또한 숲속에 자리 잡은 축제장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는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

#### 모리스타운 국립역사공원(뉴저지)

워싱턴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

뉴저지의 모리스타운은 미국 독립전쟁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워싱턴 장군과 대륙군이 혹독한 겨울을 나며 독립의 의지를 다졌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국립역사공원에는 당시의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박물관에는 당시 사용된 유물과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어 역사의 숨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은 단풍이 물드는 가을철에 더욱 아름답다. 황금빛으로 물든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역사의 무게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시니어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모두 힐링할 수 있는 산책길로, 차분히 걷다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 업스테이트 허드슨 밸리 & 하이드 파크

강변 드라이브,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길

뉴저지에서 차로 두 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 허드슨 밸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 유산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드라이브 코스는 특히 가을철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장관을 이룬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만으로도 하루가 풍족해지는 듯한 만족감을 준다. 허드슨 밸리의 대 명소인 하이드 파크에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생가와 도서관, 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사를 바꾼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역사 공부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또한 주변에는 와이너리와 예술적인 분위기의 작은 마을들이 곳곳에 있어, 가벼운 식사나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소개된 세 곳은 각각 문화와 체험, 역사와 사색, 자연과 여유라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시니어들이 무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일정인면서도, 눈과 마음에 오래 남을 감동을 선사하는 여행지들이다. 올 가을,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루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새로운 경험과 함께 삶의 활기가 한층 더해질 것이다.

여주영 (명예회원)



## 2025년 동계 Myrtle Beach Golf Trip

올해도 교통이 편리하고 널찍한 North Beach Resort, 5 Room Condo에 숙소를 정하고, 잘 정비된 Legend 골프장에서 5일간 골프여행을 계획하였으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10월 1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기간:** 12월 7일(일)-13일(토)

**숙소:** North Beach Resort Tower Condo(일-목, 5박)

**골프:** 5 Rounds(월-금) Legend Golf Resort  
Moorland, Parkland, Heritage, Oyster Bay

**예상비용**(2인 기준, 1인당):

Golf & Condo, \$650(골프 \$400, 숙소 \$250)  
식사 및 공동경비, \$200 (소계) \$850

- 1, 숙소를 혼자 사용하는 경우에는 \$250 추가
- 2, 번거로운 대형 밴 렌트는 중단하고 각자 현지 도착 방안 강구
- 3, 참가신청시 예약금 \$500(골프 400, 숙소 100) 선납 바랍니다.

Pay to: Chong Hong

Mail to: 5 Horizon Rd, Apt 1602, Fort Lee, NJ 07024

Zelle 송금: Chong Hong, 646-342-2667

- 4,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646-342-2667로 전화 바랍니다.



## 뉴욕동창회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뉴욕동창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가지오니 골든클럽 회원들께서 모두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학기금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유학중인 후배들과 동문 자녀나 손주들에게 서울대 동창회의 관심과 애정을 잘 전달하고 서울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양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짜:** 10월 23일 (목) 11시

**장소:** Pelham Bay & Split Rock Golf Club

**주소:** 870 Shore Rd, Bronx, NY 10464

**참가비:** \$120

**등록:** 김병순 (703)407-4928

또는 Golden Club 단독방

**장학금 기부:** 형편상 골프대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대로 이전구 장학위원장에게 장학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r. Jun Koo Rhee,

41 Holland Avenue,

Demarest, NJ 07627

##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2025년도장학생 신청공고

**신청대상 및 자격** (아래 1번 또는 2 번에 해당하는 자)

1. 서울대학교 재학생, 졸업자로서 NY, NJ 지역의 대학,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중에 있는자
2. 뉴욕지역 동창회원의 직계가족 (배우자, 자녀, 손자녀)으로 미국내 대학,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에 있는 자

**신청마감** 2025년 10월 30일

o 장학금액 \$3,000.00

o 인원 약간 명

**선발(수혜자) 확정 통보** 2025년 11월 25일

**장학금 수여** 2025년 12월 6일 (시간, 장소 추후 통보)

**제출서류**

- o 신청서
- o 서울대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동창회원 직계가

족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o 미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
- o 최종학기 성적 증명서
- o 신상 명세서 (Essay 형식)

**등록비** \$50 (Check 또는 Money Order: Payable to SNUAANY)

o 서울대 출신자는 동창회 입회비로, 동창회원 가족은 클럽회원 입회비로 충당됨

**신청서류 보낼 곳**

Mr. Jun Koo Rhee, 41 Holland Avenue, Demarest, NJ 07627

o 신청서류 우송전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먼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Samuelrhee115@gmail.com

|       |                  |
|-------|------------------|
| 회장    | 김병순 212-213-4151 |
| 장학위원장 | 이전구 917-514-1939 |
| 총무    | 박제순 201-321-9916 |

## 낙상 예방을 위한 황금 같은 조언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지혜와 경험이라는 보물을 얻지만, 동시에 낙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사고를 넘어,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몇 가지 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 1. 집안 환경을 꼼꼼하게 점검하세요

집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 **바닥 정리:** 집안의 모든 바닥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전선이나 물건들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벽 쪽으로 치워주세요.
- \* **미끄럼 방지:** 욕실이나 주방처럼 물기가 있는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과 침대 곁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 \* **조명 활용:** 집안 곳곳을 밝게 유지하세요. 밤에 화장실을 갈 때는 발밑을 비출 수 있는 수면등이나 센서등을 설치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해 넘어지기 쉽습니다.
- \* **계단 안전:** 계단을 이용할 때는 핸드레일을 꼭 잡고, 각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2. 꾸준한 운동으로 균형 감각을 기르세요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근력과 균형 감각을 강화하는 운동은 몸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 \* **걷기 운동:**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걸으면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 **균형 운동:** 한 발로 서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등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벽을 짚고 시작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 \*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은 몸의 유연성을 높여 부상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 \* **안전한 운동 환경:** 운동 전에는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운동할 때는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건강 관리에 신경 쓰세요

- \* **시력 및 청력 점검:** 시력이나 청력이 약해지면 주변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안경이나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복용 약물 확인:**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있는지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고, 복용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 \* **편안한 신발 착용:** 굽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며 발에 꼭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슬리퍼나 굽이 높은 신발은 피하세요.

### 4. 생활 습관을 점검하세요

- \* **천천히 움직이기:** 갑작스럽게 일어서거나 방향을 바꾸면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잠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 \* **술은 적당히:** 과도한 음주는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 \* **위험 상황 피하기:**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미끄러운 바닥이나 빙판길은 되도록 피하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면서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회원동정]

♥ 김영덕 박사님(공대53)의 김재진 사모님이 향년 88세로 8월 17일 소천하였습니다. 고 김재진 사모님의 추모예배가 8월 23일(토) 오후 4시에 Flushing에 있는 프러미스 교회에서 친지들과 골든클럽 회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정중하게 열렸습니다.



♥ 최진영 (문리55) 선배님께서 9월 9일에 향년 88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일정은 한국에서 친지들이 올 수 있는 10월경에 추도예배로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레터 10월호의 6/7면에 둘째 따님 Sharon이 올린 추도사를 보시면 고인의 삶과 업적들을 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최순채 (의대60) 회원께서는 아내분의 건강문제로 지난 2년간 골든클럽 행사에 참석치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2026년부터는 회원을 취소하셔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아내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 광승용 (의대65) 회원께서는 Georgia로 이사가셨었는데, 거리관계로 회원을 사퇴하신다고 알려왔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자주 소식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urora

## 아이슬란드, 불과 얼음의 땅을 걷다

■ 홍종만 (공대64)

9세기 후반, 노르웨이 국왕 하랄 1세의 통치를 피해 이주한 정착민들에 의해 개척된 아이슬란드는 유럽 대륙과 떨어져 있지만, 역사와 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으로서 국경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경제에서 어업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EU의 공동 어업 정책에 따른 어업자원 통제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수산물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40%에 달해 알루미늄과 함께 국가 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며, 그 중에서도 대구는 단일 어종으로 가장 높은 수출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7만 명 인구의 70% 이상이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수도, 레이카비크에 거주하며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에 육박하는 아이슬란드는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행은 아이슬란드 남동부 고원지대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라우가베구르' 55km 트레킹 코스를 4박 5일간 완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산장(hut)을 거점으로 삼아 걷는 'hut-to-hut' 방식으로 진행된 트레킹. 처음 이들은 곳을 비를 맞으며 걷느라 바지와 양말까지 다 젖어 산장에 도착해 옷을 말리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곧 맑은 날씨를 되찾아 아이슬란드 고원지대의 장엄한 풍경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셀라란드스포스 폭포



Sky Lagoon 온천장

고원지대에는 나무 한 그루 없이 이끼만 무성하여 초록색 구름을 장식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활발한 화산 활동의 증거로 여기저기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때로는 검은색 화산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황량한 볼모지대를 지나기도 하고, 빙하의 하단을 가로지르거나 무릎까지 차오르는 강물을 여러 번 건너는 등 자연 그대로의 날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바트나이외키들 빙하

5일간의 트레킹을 마치고 레이카비크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다음 날, 해안도로를 따라 골든서클 지역을 관광했습니다. 옐로스톤에서 보았던 간헐천처럼 힘차게 뿜어내는 게이시르, '황금 폭포'라는 뜻으로 두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장대한 굴포스 폭포를 보며 아이슬란드의 자연이 지닌 경이로운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외에도 바다와 이어진 듯한 인피니티 풀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라군 온천장, 쏟아져 내려오는 물기둥 뒤편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셀라란드스포스 폭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수증기와 함께

마지막 여정은, 지구온난화에도 불구하고 빙하가 아이슬란드 국토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인 바트나이외키들(Vatnajökull)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빙산들이 떠다니는 요쿨살론 빙하 호수와, 떠내려온 얼음 조각들이 검은 모래사장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해변을 끝으로 11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불과 얼음이 공존하는 아이슬란드에서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D**r. Jin Young Choi (married name Jin Young Kim), a distinguished scholar and professor of English Literature, passed away peacefully on Sunday, September 7th 2025 in New York City at the age of eighty-eight. She was a trailblazer and devoted wife to the love of her life, Jung Ju (JJ) Kim, who passed away 18 years ago. She is immediately survived by her three children, Caroline, Sharon, and Eric; her five grandchildren, Cameron, Kai, Charlotte, Izzy, and Nico; her two younger brothers, Dr. Jin Kook Choi and Jin Seh Choi, and younger sister Dr. In Young Choi, as well as numerous nieces, nephews, sons- and daughter-in-law, and extended family.

Jin Young had a remarkable and accomplished life that took her from Korea to the United States for her education, back to her motherland in Korea, where she thrived both academically and professionally, and ultimately, a return to New York City with JJ to retire and spend more time with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Jin Young was born in Manchuria on March 29, 1937 to In Bong Choi and Kang Sook Hyung, a family of fierce and dedicated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who had moved to Manchuria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She was the oldest of eight children. After Korea gained independence from Japan in 1945, Jin Young and her family moved to Korea when she was 8 years old, only to have her family torn apart by the Korean War in 1950. She never forgot the unfortunate loss of two of her younger siblings during this war, among other tragedies caused by the subsequent poverty.

From very early childhood, Jin Young was a precocious child and voracious reader, and although most of her family's fortunes were decimated by the war, Jin Young was driven to succeed academically. She worked after school to

support her six siblings and still finished at the top of her classes. She was accepted to the country's top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English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she eventually graduated as Class Marshall, the top student in her entire class.

During this tim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s that changed the course of her life was working with Dr. Frank Schofield, a British-born Canadian veterinarian, missionary, and famous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he is the only foreigner buried in the patriotic cemetery at the Seoul National Cemetery). Jin Young formed a deep bond with Dr. Schofield as his assistant and interpreter and the two of them stayed in touch many years after his retirement and up until his death. After graduation, Jin Young worked at the English newspaper in Korea, The Korea Herald, as one of the few bilingual Korean reporters at the time, even reporting from the Demilitarized Zone (DMZ) which was unheard of for a young, female Korean reporter. While continuing to work with Dr. Schofield, Jin Young was not only accepted to the Master's program of English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she also became the first female Fulbright Scholar from Korea to study abroad.

Arriving in North Carolina in 1961, Jin Young met someone who would become one of her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s, Jung Ju (JJ) Kim, a fellow Korean student studying in North Carolina. JJ, who was studying architecture at neighboring North Carolina State, was an ambitious, smart, handsome, and gregarious student who quickly became enamored with Jin Young. The two dated and on September 4, 1963, Jin Young and JJ happily married at a small chapel in Raleigh, North Carolina. After receiving her Masters degree in English Jin Young taught literature at St. Augustin College as well as Catawba College. It was also during this time that



Graduation from SNU, 1959



Reporting from the DMZ for Korea Republic, 1960



Flying to US as a Fulbright Scholar, 1961



Marrying JJ Kim, Raleigh, NC, 1963



With her graduate students, Chung Ang University, 1998



Mom's last Christmas, 2024

they welcomed their two daughters, Caroline and Sharon. In 1969, Jin Young and JJ moved to New York City where JJ was studying to receive his Master's degree in Architecture from Columbia University. In 1970, Jin Young and JJ moved to Ann Arbor, Michigan where JJ had been accepted into the PhD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s School of Architecture. There they welcomed their third child, Eric.

After JJ finished his PhD at Michigan, the family moved back to North Carolina, this time to Charlotte, but after only one year, Jin Young and JJ were presented with a life changing opportunity. As US educated academics, they were both offered teaching positions at Chung Ang University in their respective fields. Although both had not been able to return to Korea for over 15 years, it was not an easy decision as they had 3 young children to consider. But the opportunity was too good to pass up, and in 1976, Jin Young and JJ made the leap to return to Korea.

She was a popular tenured professor for 27 years and taught a wide-variety of courses, particularly 20th Century American fiction, to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hom she mentor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lassroom. While teaching, Jin Young also pursued her PhD and became the



With her three children, their spouses and her five grandchildren

first person to receive a doctorate in English Literatur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Jin Young's academic career thrived and she ultimately rose to become the Chair and Dean of Women Students of the English Department and Editor-in-Chief for the campus paper, The Chung Ang Herald. S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in 1983 and conducted research at Yale University under a second Fulbright Scholarship in 1992.

Jin Young was incredibly active in many literary organizations during her career, serving as President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The PEN Club of Korea, The Korean American Society, The American Fiction Society, The Hawthorne Society, The Steinbeck Society, The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In addition, she was a syndicated international columnist for The Korea Herald (her columns were eventually published as a book compilation). She was a part-time instructor for the Republic of Korea's national training institute for foreign diplomats and business leaders for over twenty years. In addition to translating several works of both English and American authors into Korean, she was also an accomplished published author of many books and papers on English and American novels. Upon her retirement in 2002, she was granted Professor Emeritus of English Literature at Chung Ang University.

In 2003, with JJ's health in decline, Jin Young and JJ returned to New York City to retire and be closer to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During her last 22 years, she continued to translate Korean literature for English-speaking audiences, lectured occasionally at The Korea Society, enjoyed New York City culture, saw former students and classmates in the area, and spent time with her family. She was deeply loved and admired and will be deeply missed by all.

Orbituary by Sharon Gibbons (2nd daughter)

